

“5·18 큰 뜻 새겨 지역화합 역할 다하겠다”

김영삼 前 대통령 단독 인터뷰

김영삼 전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5·18기념재단과 5·18유족회 등 5월 단체들의 초청으로 22일 광주를 방문, 국립묘지 승격 이후 처음으로 5·18묘지를 참배하고 5월 단체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광주일보는 5·18의 명예회복과 책임자 처벌 등 5·18이 올바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역할을 한 김 전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20년만의 참배에 대한 소회와 지역주의 극복 방안, 17대 대선에 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이번 특별 인터뷰는 5·18단체와 간담회가 끝난 직후인 22일 오후 2시20분부터 30분 동안 광주 프라다호텔에서 신항락 편집국장과의 문답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그에 앞서 뼈뚫한 방문일정을 감안해 서면 질의와 답변을 주고 받았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한다.

대담=신항락 편집국장

22일 오후 광주 프라다호텔

— 대통령 재임 시 광주를 찾고 싶어도 방문하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까. 우여곡절 끝에 국립5·18민주묘지를 처음 참배해 감회가 새로우셨을텐데요?

▲서울에서 광주까지 비행기로 50분 걸리는데 너무 오랜만에 광주를 다시 찾아 감회가 무량했습니다. 더욱이 5·18 단체로부터 감사패까지 받고 보니 나의 진심이 이제야 제대로 전해졌다는 생각에 참으로 기쁘고, 큰 감회를 느낍니다.

— 김 전 대통령께서는 ‘80년 광주’와도 깊은 인연을 맺고 있습니다. 1980년 이후 전두환 정부에 의해 3년 동안 가택연금된 당했고, 1983년 5월18일부터 23일간 민주화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심정은 어떠했습니까.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에 저항하여 오로지 민주주의를 외쳤다는 일념 하나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 한 목숨이 희생되어

조국에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는 결연한 심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나라의 민주세력을 잠에서 깨웠고, 이후 민주협과 신한민주당으로 이어지는 민주화 투쟁의 큰 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5·18은 군부 쿠데타 세력에 의해 불순분자들이 일으킨 ‘사태’로 낙인 찍혔다가 문민정부에 와서야 ‘민중화운동’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재판정에 세웠고,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정, 국립묘지 승격 등 5월 문제 해결에 각별한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텐데요.

▲많은 반대에 부딪혀 고통을 받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만큼 책임자가 없다는

생각으로, 또 역사를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 하나회를 전격 척결하여 다시는 이 땅에 군사쿠데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군사쿠데타는 반드시 단죄한다는 역사적 교훈을 남겨 다시는 이 땅에 정치적인 밤이 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절박한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 광주시민들은 5·18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며 ‘미완의 5·1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했습니다.

— 그동안 정치권에서 뜻있는 의원들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김 전 대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오후 광주 프라다호텔에서 광주일보 신항락 편집국장과의 대담을 나누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손을 잡아 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번 5월 단체들의 초청에도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화해를 기대하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역주의가 고질화된 광광역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산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5월 단체가 나와 초청해준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지역화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DJ(김대중

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손을 잡아 아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고 이번 5월 단체들의 초청에도 두 분의 전직 대통령의 화해를 기대하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역주의가 고질화된 광광역시, 우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청산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5월 단체가 나와 초청해준 의미를 깊이 생각합니다. 지역화합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DJ(김대중

— 광주시민들은 5·18 발포 책임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 여전히 미흡하며 ‘미완의 5·18’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을 구속시키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박탈했습니다.

— 그동안 정치권에서 뜻있는 의원들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김 전 대

전 대통령)와 국립5·18민주묘지도 가고, 부산 민주공원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것이 국민의 바람이고, 그렇게 한다면 국민들 또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입니다. 2012 세계박람회 여수 개최를 기원하기 위해 오는 7월 중 여수와 거제도 등 잇따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최근 한 포럼 강연에서 “조공식 남북관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개된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어 북한에 가서 2인자인 김영남을 만나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경쟁을 벌이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또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6자회담은 내가 대통령 재임 중 제주도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4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추가되어 이뤄진 것입니다. 남북관계나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여러가지로 제한적이지만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정상회담은 때가 되면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선거를 7개월여 남겨두고 있는 7월 중 여수와 거제도를 잇따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변 대선은 국가정체성 문제와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미동맹, 교육평준화 문제, 성장동력, 국가발전 전략 등 많은 측면에서 대단히 중대한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도 지역감정이라는 말과 선거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화합과 균형 발전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면?

▲지역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계 지도자들이 마음을 열고 앞장서야 합니다. 또한 서로 교류를 활성화해야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배드민턴을 치는데 나의 파트너와 상대방이 대부분 호남 사람입니다. 운동 후 매일 차를 같이 마시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는 전남 사람도 있고 전북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일상생활에서 지역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 나의 이번 광주 방문과 국립5·18민주묘지 참배가 지역감정 해소와 동서화합, 국민통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올 연말 17대 대선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선에 관여할 생각이 있는지요?

▲이변 대선은 국가정체성 문제와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미동맹, 교육평준화 문제, 성장동력, 국가발전 전략 등 많은 측면에서 대단히 중대한

전기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집권은 안 됩니다. 정권교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도는 사실상 한나라당 후보 두 명이 경쟁하는 상황이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범여권에서) 갑자기 어느 후보가 부상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50년 동안 정치를 해온 정치인으로서 (대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후보들은 당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지지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순리를 지켜야 합니다.

/정리=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세계박람회 지원 위해 7월 여수 갈 것

남북정상회담 대선 이용 용납할 수 없어

▲최근에 정치인들이 앞을 다투어 북한에 가서 2인자인 김영남을 만나 사진 한 장 찍고 오는 경쟁을 벌이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정치인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남북관계 또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6자회담은 내가 대통령 재임 중 제주도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하면서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에게 제안했던 4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추가되어 이뤄진 것입니다. 남북관계나 동북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22일 광주 프라다호텔에서 5·18 재단, 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등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뒤 이홍길 5·18 재단 이사장과 함께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내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묘지 첫 참배 “목이 메인다”

특별법 제정 등 공로 5·18단체서 감사패 받아

■YS, 내광 이모저모

김영삼 전 대통령의 22일 광주 방문은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김대중(DJ)·김영삼(YS) 화해’ 나아가 ‘동서화합의 신호탄’이라고 단초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김 전 대통령도 이날 DJ와의 광주 5·18 묘지, 부산 민주묘지 공동 참배, 여수박람회 유치에 관한 여수 방문 등을 밝히면서 화합을 향한 우호적 입장을 잇따라 피력했다.

김 전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한 것은 지난 1996년 광주지하철 기공식 참석 이후 11년 만이며, 5·18 묘지 참배는 1987년 이후 20년만이다. 물론 5·18 묘지가 지금의 위치로 이전해 국립묘지로 승격한 이후로는 당연히 첫 참배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정희화·김무성·이경재 의원, 박

중웅 전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오정소 전 국가보훈처장 등 일행 20여명과 함께 5·18 묘지에 도착했으며 5·18 단체 회원 100여명이 그를 환영했다.

김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自由(자유), 正義(정의), 眞實(진실)’이라고 적은 뒤, 기념탑 앞에서 헌화·분향하고 기념식수를 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진즉 오셔서 우리 마음을 풀어줬어야 하는데, 이제야 왔느냐”며 오열하는 5·18 희생자 고 김경철씨의 어머니인 임금단(76)씨를 얼싸안으며 위로했다.

김 전 대통령은 고 흥남순 변호사와 지난 18일 사망한 5·18 부상자 고 장기언(78)씨 묘지 등 묘역 곳곳을 둘러봤다.

30여분간 참배를 마친 김 전 대통령은 광주시 남구 프라다호텔로 이동, 5·18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재일 당시 5·18 특별법 제정,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처벌, 국립묘지


승격 등이 이뤄진 점에 대한 감사의 뜻이 담긴 패였다.

감사패 전달에 앞서 이홍길 5·18 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에 남긴 족적 이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미묘함 때문에 김 전 대통령의 진의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아픔이 됐다”며 “5월 항쟁 27주년을 맞아 이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 김 전 대통령을 초청,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은 “묘지를 둘러보고 너무 가슴 아프고 목이 메어서 얘기하기가 힘들었다”며 “오늘 이 자리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진정 앞으로 나아가는 데 좋은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5·18단체 대표 등과 오찬, 점심을 가졌으며 5·18 기념문화관 전시실과 기념재단을 방문한 뒤 상경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2년 여수엑스포
유치를 지원합니다!

자연의 감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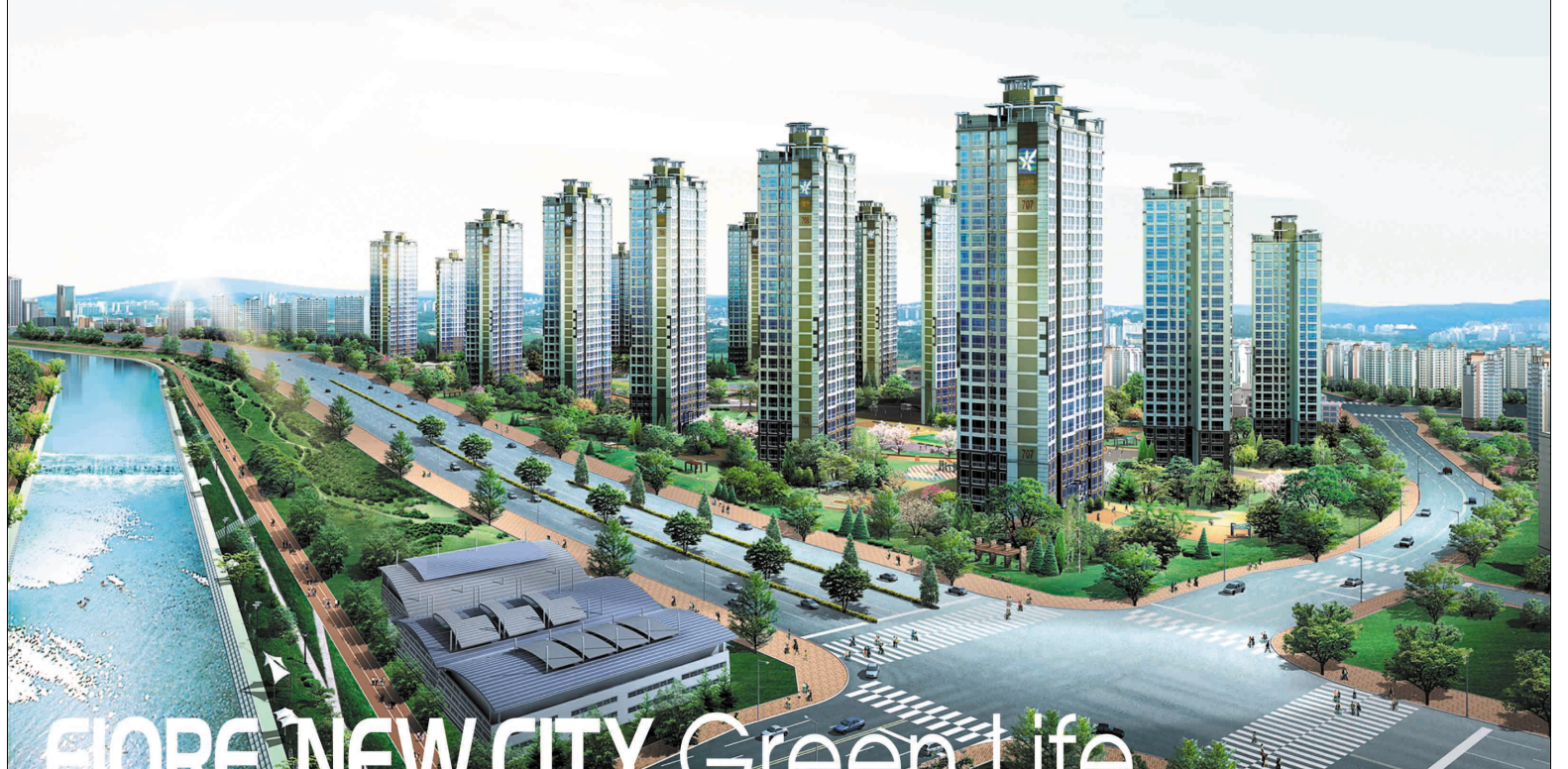
생활의 감동

교육, 생활편의시설을 보다 가깝게 누리는

수완신도시 대표 아심작-

피오레 NEW CITY

2만 2천여 평의 단지 내 정원에서 누리는



FIORE NEW CITY Green Life

오늘 공개! (5월23일 오후 2시)

광천동 대주 주택전시관에서 만나는 대주건설의 아심작!

문의. (062) 367-3000

광천동 대주 주택전시관 GRAND OPEN

* 본 CG컷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합니다. * 하자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분양문의 용도: 공동주택 * 토지 소유권 확보 * 지번: 광주광역시 수완동 1가 8-2, 8-4, 17-2